

# 불어문제론연구

鄭 智 榮

(불어불문학과 교수)

## I. 서 론

### A. 언어연구의 방향

언어 *langage*<sup>1)</sup>는 표현의 상징 체계인 까닭에 언어연구의 요체는 말 *parole*<sup>2)</sup>과 사고 *pensée*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연구 방법론으로는 언어의 이러한 본질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없었다. Ch. Bally는 지금까지의 언어연구 원칙들과 자신이 채택한 방법론을 대비시켜 고찰하면서 문제론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 연구는 사고단위의 일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언어를 분할하여 수동적인 배치에 집착하는 기계적, 분석적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언어의 자연적인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적절한 표현단위를 확정하는데도 실패하였다.<sup>3)</sup>

이러한 분석적 연구는 역사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 꾸짖다 *reprendre*의 의미를 <다시 re->와 <취하다 *prendre*>의 결합으로 생각하거나 <정신이 헛갈리다 *battre la campagne*>의 뜻을 <돌아다니다 *battre*>와 <들판 *campagne*>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관념의 연합에 매달리는 것이 된다. 결국 전통적인 언어연구 방법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Bally가 택한 문제론의 연구방식은 무엇인가? 우선 그는 단어의 배후에서 관념을 찾는 기계적 작업을 배격하고 있다. 언어란 우리가 사고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는 전제 아래, 그는 표현이 어떤 사고단위에 일치하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인간의 사고는 본래 종합적이므로 그것의 발현인 언어 역시 기계적 규칙에 따라 나열된 단어의 더미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언어는 오히려 심리적, 사회적 법칙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언어연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언어 현상에 대해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와 말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Bally에 의하면 사고는 관념 *idée*과 감

\* 본 논문은 '89년도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1) 언어활동 *langage*는 인간특유의 능력으로서 음성기호체계, 즉 *langue*를 사용하여 의사전달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2) *langage*는 *langue*와 *parole*의 두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parole*는 *langue*의 개인적 실현으로서 실제로 관찰, 경험될 수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 3) 이 경향은 자동번역방식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정 sentiment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두 요소의 혼합 비율에 따라 표현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또한 전적으로 관념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있을 수 없으며, 객관적 사실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화자의 <정의적인 affective> 측면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말하기는 타인을 전제로 하는 만큼 언어는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된다: 먼저 발화주체는 자신의 표현양식에 따라 사회적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화주체의 내면에서는 늘 감정적 충동과 사회적 절제가 갈등을 일으키며,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의 사회적 조건에 알맞은 표현이 결정된다. 요컨대 발화주체는 사고에 지적, 정서적 형태를 부여하게 되는데, 정서적 요소는 자아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 B. 언어연구와 문체론

언어연구가 정신과 말 사이의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문체론 stylistique은 사고가 말로 표면화되었을 때의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 문체론은 심리학과 언어학의 중간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고된 사실이 아니라 말해진 표현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시각은 외부로 향해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로 죽은 사람에 대해 《불쌍한 사람 le malheureux!》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문체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 표현을 유사한 다른 것들과 비교하거나, 그 문법적 구조를 밝히는 것은 문체론의 작업이라고 할 수 없다. 문체론의 작업은 이 표현이 <동정심>이라는 생각에 상응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지적 요소 보다는 감정적 요소의 비율이 높으며, 그 감정은 억양, 생략법 같은 표현 방식에 의해 언어에 반영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다.

Bally는 E. Augier의 <프와리에씨의 사위 Le Gendre de M. Poirier>의 한 부분을 예로 들어 문체론의 관점에서 문장 구성과 감정적 움직임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봐요, 장인어른, 사위라는 이 작은 풀치덩어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사위라는 당신의 구멍난 바구니에 대해 여전히 화나 계신가요?

《Eh bien! Cher beau-père, comment gouvernez-vous ce petit désespoir de gendre? Etes-vous toujours furieux contre votre panier percé de gendre?》

문체론이 주목하는 부분은 <구멍난 바구니같은 당신 사위 votre panier percé de gendre>이다. 여기에서 이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범위를 심리적 단위에 상응하도록 한정시켜 보면 이 표현은 <panier percé>와 <gendre>에 각각 일치하는 두 사고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계정하기 délimitation>의 작업이다.

다음으로 이 단위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떤 관념에 상응하는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sup>4)</sup> 그 결과, <구멍난 바구니 panier percé>는 <낭비가 prodigue>라는 관념에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표현과 그것의 <확인 identification>을 위해 사용된 용어를 비교해보면 그 표현의 정의적 특성이 드러난다. <prodigue>보다는 <panier percé>가 더 감각적이고, 독자의 상상력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감수성을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은 추상적 관념을 감각 세계의 대상과 비교하여 표현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문체론은 표현의 정의적 특성과 이를 위한 언어의 사용 방식,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 나아가서는 표현 체계 전체를 조명하려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체론은 보편적인 언어의 메카니즘이나 특별한 언어, 혹은 개인의 표현 체계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Bally는 개인의 문체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한 언어공동체 전체의 언어와 그 구성원 개개인의 언어 사이의 편차를 채는 개인적 문체론 *stylistique individuelle*<sup>5)</sup>과 작가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언어 사용법에 대해 연구하는 문체론 *style* 연구<sup>6)</sup>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실질적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문체론은 말과 사고 사이의 상응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모국어에서 출발해야 하며, 특히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자발적 상태의 언어<sup>7)</sup>를 공식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된다고 Bally는 지적한다. 문체론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말과 생각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므로 시간성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체론은 모국어 연구에서 출발하여 <보편심리 *mentalité commune*>를 근거로 삼아 주변 언어의 연구로 나아갈 수도 있다.

요컨대 문체론은 표현된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표현의 정의적 특성을 규정하고, 거기에 사용된 언어적 수단을 밝혀냄으로써 표현 하나하나가 언어의 일반 체계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반면 작가의 문체연구는 한 작가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표현을 대상으로 삼아, 그 표현의 일반적 작용, 작가의 전체적 문체 속에서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문체론과 개인의 문체연구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체론은 작가의 미학적 의도를 탐구하는 문체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개별적 사실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찰의 결과를 성급하게 일반화시키기에 앞서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배제된 객관적인 기술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 사실들의 분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묘한 뉘앙스를 내포하는 표현들을 확고부동한 틀에 맞출 수는 없다. 사고와 말 사이의 생생한 관계를 포착하고 표현적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4) 이때 문장의 일반적 의미, 상황, 화자의 특성 등 표현의 주변도 고려해야 한다.

5) 모든 개인은 모국어를 말하는 특별한 방식을 지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습관적으로 문장구성, 표현체계 등에서 이탈을 행한다.

6) <Le style, c'est l'homme>를 받아들인다 해도 한 작가의 문체 연구는 그가 미학적 의도로 구성된 언어의 특징을 드러내 줄 뿐, 그의 개인적 언어사용을 조명하지는 않는다.

7) 이것이 바로 <구어 *langue parlée*>이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말하여진 것이냐 글로 쓰여진 것이냐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발화된 언어라는 점이다.

본능, 직감이 필요하며, 각 경우에서 분류 근거가 될 수 있는 < 지배요인 *facteur dominant* > 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비교이다. 비교란 발화주체가 무의식적으로 느낀 것을 의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일반적인 경향과의 편차를 재는 것이다. 즉 인간 정신의 변함없는 경향과 사고를 전달하는데 수반되는 일반 조건을 관찰하고 추상화시킴으로써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표현양식을 확립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Bally는 이러한 표현양식으로 < 지적 표현양식 > 과 < 보편언어 > 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표현들 사이의 의미 차이와 감정의 존재여부를 측정하며, 후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비롯된, 모든 사회적 특징들의 집합인 표현양식이 어떻게 < 환기효과 > 를 내는가를 밝혀주는 것이다.

## II. 표현의 한계정하기

### A. 어원연구와 문체론

문체론은 여러 표현방식들이 서로 맺고 있는 작용 중에서 현실적인 연합만을 연구하기 때문에, 단어들 사이의 관계가 현실적인 유효성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한계정하기 > 의 작업에 어원적 친족성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어원론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단어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어원적 본능은 의미는 고려하지 않고 형태에만 의거하여 단어나 단어의 구성요소를 연결시키는 무의식적 습관이다.<sup>8)</sup> 어원적 본능은 같은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들을 연합시키거나,<sup>9)</sup> 접두사와 접미사에 의미작용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모든 단어를 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대부분의 접두사나 접미사는 언어학적 의식에 의해서만 어근에서 분리될 뿐, 그것들이 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분할이 가능한 합성어 *composé*라고 할지라도 문체론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분할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들은 하나의 단위로 용해<sup>11)</sup>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접두사와 접미사의 < 한계정하기 >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다.

형태에 근거하여 있지도 않는 의미를 창조하는 어원적 본능 외에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유추적 본능이<sup>12)</sup> 있다.

8) *saler*와 *sel*은 형태가 다르지만 관념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반면 *saler*와 *salaire*는 어근이 비슷하지만 관념상의 관계는 없다.

9) *rouge*와 *rougir*를 연합시키는 경우.

10) *re-*라는 접두사의 의미가 < 새로운 *nouveau* > < 뒤로 *en arrière* > 라고 결정되면 이 의미를 모든 경우에다 적용시키려한다. 그러나 < 다시오다 *revenir* >, < 다시 읽다 *relire* > 의 접두어 *re-*를 < 감사하다 *remercier* >, < 닮다 *ressembler* > 의 *re-*와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11) < 한술가락의 분량 *cuillerée* >, < 한컵의 양 *verrée* > 에서 어근은 용기(容器)를, 접미사 *-ée*는 내용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이중성은 < 구름 *nuée* > < 길이의 단위 *coudée* > 에서는 희미해지고 < 소나기 *ondée* > < 골짜기 *vallée* > 등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서 분할은 불가능하게 된다.

12) *relire*의 접두사 *re-*의 의미를 < 주목하다 *remarquer* > 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어원적 본능이 작용한 결과이다. 반면 이를 < 가다 *aller* > < 달아나다 *fuir* > 에 적용시켜 < raller > < *refuir* > 등의 단어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유추적 본능의 작용이다.

그러나 언어는 어원과 같은 규칙적인 방식으로 어휘를 축조하지는 않으므로 모든 것을 사고의 논리적 주형 속에 집어넣으려는 어원적 본능이나 유추적 본능이 문제론의 <한계정하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Bally는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논리적 개념들이 그 반대개념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서 <반대어 contraires>에 의한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즉, 어원적 관점에서 <존경할 만한 estimable>이나 <공격적인 offensif>의 반대어로 간주될 <값비싼 inestimable>나 <무해한 inoffensif>가 의미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어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은 동음이의어 homonyme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기원이 다른 두 단어가 변천 과정에서 우연히 같은 발음이나 철자를 갖게 되는 <어원적 동음이의 관계><sup>13)</sup>와 한 단어의 여러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접촉을 상실한 결과, 현재는 사고의 관점에서도 구분되는 <의미적 동음이의 관계><sup>14)</sup>를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문제론은 현재 속에서 사고하는 발화주체와 똑같은 조건에 위치하면서, 말과 사고 사이의 자발적이고 영속적인 관계를 포착하고자 한다. Bally에 의하면 전문가가 아니라면 《~와 다투다. avoir maille à partir avec qn.》이라는 표현을 쓸 때, 프랑스인들은 전체적이고 현재적인 의미작용만을 보기 때문에 그 요소들 각각의 의미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 표현에서 단어들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문제론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적이고 자발적인 연합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느껴진 것이라면 잘못된 어원이라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민간어원>이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는 부정확하지만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형성한 모든 연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일 un jour ouvrable》이라는 표현은 많은 프랑스인에게 《상점이 열리는 날 un jour où l'on ouvre les magasins》로 이해된다. 이는 어원상의 잘못이지만 자발적이고 생생한 까닭에 실제 어원<sup>15)</sup>보다 가치있는 것이다.

어원적 본능이 의미론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의존하여 단어를 고립시켜 연구하기 때문에, 공시대만을 고려하는 문제론의 연구에 있어서는 장애물일 뿐이다. 발화주체가 성립시킨 연합은 자발적이고 감정적이며 어느 정도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문제론은 바로 이 감각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어 연구에서는 어원적 본능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국어가 아닌 말을 사용하는 외국인은 사고와 말의

13) <칭찬하다 louer un élève> <세놓다 louer une maison>의 louer. 전자의 어원은 laudare, 후자의 어원은 locare.

14) <거절하다 décliner une affaire> <격변화시키다 décliner un substantif>의 décliner.

15) opare=travailler

연합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인상<sup>16)</sup>에 좌우되기 쉽다. 의미가 불명료할 때 형태에 의존하게 되며, 형태에 의존하는 것은 어원적 본능에 이끌려 현실적이 아닌 연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국어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외국어를 연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모국어를 사용하는 문화는 전달 수단이 급속히 변형될 때 발생하게 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보수성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모국어 연구의 시선이 과거로 향한다해도 사고와 표현 사이의 상응이 확고하므로 표현 방법의 체계가 변질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국어 연구에서 어원론에 집착하는 과거 지향적 방법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외국인은 외국어의 현실적 실체 속에서 말과 사고 간의 관계를 파악해낼 수 없게 되어, 문체론이 목표하는 바 표현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B. 관용어법의 문제

여러 단어가 연합하여 하나의 사고에 상응하게 되는 경우, 그 표현은 각각의 구성요소의 종합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그 표현의 요소들은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관계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Bally의 구분에 의하면 이러한 그룹짓기의 응집력은 단어의 일시적인 연합<sup>17)</sup>에서부터 해체가 불가능한 <단위 unité><sup>18)</sup>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관용어계열 séries phraséologiques>이 위치하게 된다. 관용어법 phraséologie이란 언어가 갖고 있는 특유의 표현방식으로서 반복에 의해 문체적 편차가 인정된 상투어법 cliché와는 달리, 결합의 안정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관용어법은 주어진 공시대 속에서 한 언어의 가장 자연스런 결합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용어법>의 그룹의 요소들은 서로 접근하는 친화력을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전체는 판에 박힌 듯한 인상을 준다. 예를 들면 gravement과 grièvement은 둘다 <매우, 심하게>라는 뜻을 가진 어원적 이중어지만 <매우 아픈 gravement malade>, <심하게 부상당한 grièvement blessé>과 같은 표현에서 이 두 부사는 서로 교환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관용어인 것이다.

한편 한 표현을 이루는 단어 하나하나가 독립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전체가 단 하나의 의미작용을 갖게되어 다른 한 단어에 의해 확인될 때, 그 표현은 <관용어단위 unité phraséologique>라고 불리운다.<sup>19)</sup> <관용어법>은 단어의 그룹을 개별적인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해

16) 소리에서 음악적 효과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이지 소리 그 자체가 아니다. <종을 울리다 tinter>에서 지각되는 <울림>이 그 동음이의어 <물들이다 teinter>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17) 《Une foi qui se montre trop est une mauvaise foi》 거짓된 신앙.

18) 《Une mauvaise foi embrouille les affaires les plus simples.》 기만.

19) <달아나다 prendre la fuite>는 <fuir>로, <행동양식 manière d'agir>는 <procédé>에 의해 확인된다.

하고자 하는 어원적, 유추적 본능을 배제하기 때문에 문체론 연구의 토대가 되는 <한계정하기>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Bally가 <관용어법>과 그 지표를 연구하는 것은 어원적 본능을 배제하고 표현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이다. 표현의 연구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한계정하기>이며, 정확한 <한계>가 정확한 <확인>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한 단어가 하나의 사고단위에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의 사고단위는 단어, 단어의 일부, 단어의 그룹 등에 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사고의 단위에 상응하는 어휘를 확정하고, 표현의 확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Ⅲ. 표현의 확인

#### A. 표현의 주변

Bally는 표현의 <한계정하기>를 마감하는 작업으로서 <문맥 contexte>, <어휘>, <문장> 등 표현의 주변에 대해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잘못을 지지르다. faire une faute》에서 faire는 어휘단위로서 주변의 <문맥>에 의해 확정되는 반면 《~을 알리다. faire part de》에서의 faire는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이 표현은 《알리다. communiquer》라는 용어로 확인될 수 있는 관용어법이다. <문맥>은 여러개의 어휘단위가 서로를 제한하면서 공존하는 단어 그룹이며, 관용어 그룹은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총괄적 의미를 제시하는 단어군이다. 흔히 언어학적 단위는 문장의 요소가 아니라 <문장> 자체라고들 말한다. 문장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해 보면 한 문장은 여러개의 언어학적 요소들로 분할되며 그 요소들이 각각 사고에 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의 <확인> 작업에서도 역시 언어행위의 각 요소를 사고에 대응시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Bally는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분히 분해를 하는 대신 전체적인 인상에 집착하여 확인작업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sup>20)</sup> Bally는 Balzac의 다음 귀절을 예로 들어 이런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굶주린 노파들이, 자고새를 발견하고서 그 앞에서 멈춘 개처럼, 머리를 내밀었다고 그는 말했다. Des vieilles affamées, dit-il, tendaient la tête comme des chiens en arrêt devant la perdrix》. 이 귀절은 《탐욕스런 식성 avidité》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확인작업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인상의 결과이지 언어행위의 각 요소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인상은 문맥과 이 문맥이 발췌된 소설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상 단위들의 개인적 결합은 Bally의 문체론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학적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적 연합은 문학에서의 문체관찰이지 문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20) 어원적 본능은 지나치게 분석적이었다.

〈문어 langue écrite〉에서 표현의 주변은 문맥이 담당하는데 비해 〈구어 langue parlée〉<sup>21)</sup>에서는 문맥 뿐만 아니라 상황, 억양, 몸짓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몸짓은 언어행위에 수반되어 감정, 관념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간접적 수단이다. 억양 역시 사고의 설명이며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관념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여기 계시는군요 vous êtes là》 같은 언술은 글씨체나 문장부호에 의해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억양만이 그 의미작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렇듯 표현의 주변 사실들을 세밀히 검증함으로써 사고와 표현의 간접적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좀더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 Bally의 관점이다.

〈한계정하기〉가 이루어졌으면 정의와 확인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당신에 대한 후원은 보잘것 없다. C'est un frêle appui que le sien》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정의와 확인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우선 이미 한계지워진 frêle라는 어휘단위에 주목하고 본능적으로 그 동의어를 탐색함으로써 의미작용을 확정하려 한다. 즉, faible, débile, fragile, chétif 등의 형용사를 떠올린 후, faible를 선택한다. 그리고 faible를 frêle와 비교하여 《저항력이 나 내구성이 없는 일종의 약함 une espèce de faiblesse caractérisée par la manque de résistance ou de solidité》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frêle를 정의하고 그 의미작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frêle를 faible와 비교한 까닭은 faible가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이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들은 《약함 faiblesse》이라는 기본 관념아래 배열된다. 이것이 바로 《faiblesse》에 의한 〈확인〉이다.

한편 frêle가 faible보다 더 감정적 요소를 가졌다거나, frêle의 발음은 더 정서적이어서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표현의 자연적인 문체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된다. 또한 문체론은 이 표현이 문학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환기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도 있다. 요컨대 어떤 언어사실의 논리적인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정의이며, 관념적 등가물과 연결시키는 것이 확인이다. 그리고 이 표현이 내포한 감정적 요소를 추출하여 연구할 때 문체론이 된다.

## B. 표현의 확인과 분류

### 1. 확인의 용어 : 지적표현양식

〈확인〉은 문체론의 준비 단계로서 한 표현을 그에 상응하는 지적표현양식과 비교하여, 그 표현의 정의적 affective 성격을 부각시키는 논리언어학적 작업이다.

이번에는 Bally가 확인의 용어로 사용한 지적표현양식을 찾는 실질적인 절차와 메카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현은 거기에 내포된 관념을 가장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추상

21) 구어와 문어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전자가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인 대화언어라면 후자는 의식적으로 통제되고 구성된 언어이다. 따라서 구어가 반드시 말하여진 언어이며, 문어가 반드시 쓰여진 언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sup>22)</sup>에 의해 확인된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인의 용어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의 언어 사용에서 그렇게 하듯 먼저 동의어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의어들이 모두 확인이 제기하는 조건에 맞는지는 미지수이므로 종·류의 구분<sup>23)</sup>이라는 검증을 거치는 것이 좋다. 난처한 *embarrassé*, 곤란한 *empêtré*, 서툰 *gauche*, 어설픈 *maladroit* 등의 동의어 계열에서는 *maladroit*가 확인의 용어이다. 다른 것들은 *maladroit*에 없는 논리적, 감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maladroit*의 외연 *extension*이 가장 클 뿐 아니라, 의미 역시 가장 객관적, 지적이기 때문이다. 한 표현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확인의 용어가 처음 표현된 용어의 근본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적 논리적 관점에서 대체가 가능해야 한다. 만일 표현의 주변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면 애매한 인상의 희생물이 될 것이며, 주변을 지나치게 무시하면 분석에 집착하는 어원적 본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확인> 작업의 목표는 하나의 관념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지시하는 추상적 단어를 찾는 것이다. 이 단어가 발견되면 같은 문맥 속에서 논리적으로 등가인가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문법적 등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확인 작업은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확인의 용어로 쓰이는 어휘의 집합이 형성하는 직접적 방식의 총체이며, 둘째는 이 용어들의 양태와 그룹짓기를 규정하는 문법이 구성한 간접적 방식의 체계이다. 여기서 Bally는 순수하게 지적인 표현양식<sup>24)</sup>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표현의 정서적, 감정적 측면을 다루는 문체론이 지적인 양식을 도입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언어의 정의적 성격은 그 지적 특성과의 대립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적표현양식>은 환기효과를 내지않는 반면, <감정적표현양식>은 환기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보면 감정적 측면의 상징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체론적 비교는 이 두 양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실제의 언어행위에서는 혼합될 수 밖에 없는 이 두 표현양식을 구분하는 이유는 <자연적효과>와 <환기효과>를 구분하여 연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상적인 지적 언어의 발현은 과학언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과학언어는 너무나 전문적이므로 문체론적 연구에 맞게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순수한 지적 표현의 또 다른 예로 정의 *définition*를 들 수 있다. 정의는 추상적 표현양식을 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정서적 표현과 대조를 이루어 감정적 요소를 부각시키는데 유용하다.

## 2. 분류와 배치

확인이 끝나면 일반화를 통해서 표현을 분류해야 한다. 대부분의 표현은 둘 이상의 관념을 갖게 마련이므로 내포된 관념들을 지배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좋다. 분류는

22) 이 용어는 해체할 수 없는 심리적 요소에 상응한다.

23) 동의어 그룹에서 외연 *extension*이 가장 큰 것이 상위개념이 된다.

24) 전적으로 지적인 언어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이상이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때, 그 언어는 모든 정의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순수한 관념만을 추구하는 정신의 실제적 태도를 반영할 것이다.

자모순, 혹은 주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데, 모든 분류에서 고려할 사항은 의견이 작은 관념을 의견이 큰 관념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sup>25)</sup> 이런 식의 분류가 사용된 목록이 바로 <관념사전>이다. 이 사전에서는 용어들이 하나의 관념에 일치하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용어에 의해 연합되어 있다. 그런데 단어나 통사의 경우처럼 논리적 가치를 지닌 사실들은 쉽게 분류될 수 있는 반면, 감정에 속하는 간접적 방식의 표현들은 미묘하고 유동적이어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자료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문체론에 유용한가? Bally는 우선 단어나 속어는 추상적이고 지적인 것에서 구체적이고 정의적 표현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강도 *intensité*는 가장 자연스런 분류 원칙이다. 이러한 분류와 배치는 기계적 작업이어서는 안된다. 감정과 정서의 표현은 지적 언어행위 보다 종합적이며 본능에 의해서 혼란되기 쉬우므로 가장 지배적인 심리적 사실을 찾아내어 대응시켜야 한다.

확인과 분류는 또 다른 작업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정의에 의해 표현의 지적, 객관적 특성이 규정되어야만 그 정서적 성격이 검토될 수 있듯이 확인작업은 논리적이지만 비교에 의해서 정의적 요소의 존재 여부와 성격을 밝혀낼 수 있게 된다.

#### IV. 문체론과 표현의 정의적 특성

##### A. 정의적 특성의 확인

표현의 정서적 측면을 연구하는 문체론에서 Bally가 <확인>이라는 지적 작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 표현의 정의적 측면은 지적 내용과의 대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한 표현의 <확인>은 그 표현의 동의어 그룹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계층화하는 작업, 즉 의견이 가장 큰 개념을 확인의 용어로 삼아 그 표현의 특성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확인의 용어와 그 표현을 비교하여 편차를 재는 일이며, 그 편차가 바로 표현의 정의적 특성이다. 문체론은 지적, 논리적 성격의 한 용어를 비교의 기준으로 선택하여 표현의 정의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편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가? 우선 편차는 인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통적 언어연구 방법으로는 언어행위에서 발산되는 자발적 인상을 포착할 수 없었다. 여기서 Bally는 본능을 고려하면서 삶을 언어에 융합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관념의 체계적 연합을 사용하여 단어를 그룹으로 습득케함으로써 언어학적 지상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표현의 정의적 측면은 어떻게 파악되는가? 문맥은 지

25) 동정 *pitié* ⊂ 이타적 감정 *sentiments altruistes* ⊂ 감정 *sentiments* ⊂ 의식현상 *fait de conscience* ⊂ 의식의외적 현상 *phénomènes extérieurs à la conscience*.

적, 감성적 단어를 확정해 줄 수 있다. 《한 예술 작품의 경이로운 아름다움 la merveilleuse beauté d'une oeuvre d'art》의 merveilleuse는 아름다움의 정도를 감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역사는 처음에는 실제사실보다는 신비로운 전설로 유지되었다. l'histoire s'alimente à l'origine de légendes merveilleuses plus que de faits réels》에서의 merveilleuses는 논리적 성격을 보여준다. 논리적 반대어는 물론 연합 가능한 사실들의 대립, 접근, 비교도 또한 지적 작용의 지표이다. 《잔인한 폭군에 의해 학대받은 tyrannisé par un despote sanguinaire》에서의 tyrannisé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감정적 색채를 띤다. 반면, 《자신의 제후에게 지배받은 게 아니라 학대받은 non pas gouverné, mais tyrannisé par son prince》의 경우 tyrannisé는 gouverné와 대립을 이루면서 지성화된다.

형용사의 위치나 강세의 이동 역시 감정이 개입한 지표이다. 《고대 그리스 la Grèce antique》는 정의를 내리는 기술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스 l'antique Grèce》는 환기적이고 정서적이다.

Bally는 이러한 정의적 표현들을 자연적인 것과 환기효과를 내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현 그 자체에 내재해 있어서 표현의 직접적인 발산처럼 보이는 것이 자연적인 정의적 특성이다. 어떤 단어의 발음에서 쾌, 불쾌의 인상을 느낄 때 그것은 <자연적, 직접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환기효과>는 똑같은 사실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존재함으로써 비롯되는 인상이다. Bally는 이 인상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무의식적인 속고의 결과라고 말한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C'est une autre personne que moi qui emploierait cette expression》.

ignorant과 ignore의 차이는 그 강도에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진다. 그 차이는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자를 어디에 쑤서 넣었니? Où as-tu fourré ton chapeau?》가 정서를 자극한다면 그것은 fourrer가 구어적 표현인 까닭이다. 그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상황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낌으로써 어떤 환경이 환기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행위의 사회적 가치와 거기에서 비롯된 감정이 개입하고 있다. Bally는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은 표면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정서적 특징이지만, 문체론은 환기효과에도 주목해야 하며 그것은 직접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만큼 더욱 세밀히 기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B. 정의적 특성의 효과

### 1. 자연적, 직접적 효과

표현의 정의적 특성이 가지는 자연적, 직접적 효과는 표현의 의미작용에서 직접 비롯되

는 인상으로서, 표현의 상대적인 강도가 문제가 된다. 이 강도는 어떤 특징의 양적 차이의 반영인데 논리적 차이<sup>26)</sup>가 아니라 감정적 차이<sup>27)</sup>가 문체론이 주목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도의 지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끔찍한 terrible과 굉장한 formidable 사이의 강도 차이는 관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도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Bally는 정서적 강도의 지표로 일상적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아주 예쁘다》 대신 《그녀는 (스케치하고 싶을 만큼) 아주 귀엽다.》라고 좀 더 친근한 어투로 과장을 하면 정서적 강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지표로는 <간접적표현방식>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Je ne crois absolument pas ce que vous dites》 대신 《그것을 내가 믿다니! 설마하니! Moi, croire cela! Allons donc!》라고 말하면 감정의 뉘앙스가 증가한다.<sup>28)</sup>

지소사의 사용<sup>29)</sup> 역시 감정을 반영하여 집 maison 대신 작은 집 maisonnette이라고 말한다면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소사는 친근하기 때문에 환기적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Bally는 감정과 가치판단 등 질적관점에서도 정의적 표현의 직접적 자연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유쾌와 불쾌의 감정, 자아에의 일치와 불일치, 정해진 외부의 원칙에 대한 순응과 저항 등의 판단은 사고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이중성은 언어 속에 반영되어 있다. 동의어 계열에서 동의어들 역시 이 두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두 성격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 일직선으로 배열될 수 있다. 이 단어들의 배열 중에서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Bally가 <확인> 작업을 통해서 찾고자하는 용어이다. 중립적인 용어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언어표현에서 가치판단의 개념은 순수한 지각이 정신에서 굴절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즉 문맥과 같은 표현의 주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유 liberté는 중립적이고 방종 licence은 조롱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30)</sup>

표현이 가지는 아름다움 역시 정의적 특성의 자연적, 직접적 발현이며 그것은 즐거움과 유용성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문체론의 대상인 자발적 언어는 아름다움의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아름다움의 표현이 그 언어의 자연적이고 영속적인 기능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쾌

26) 바다 mer/대양 océan, 사용 usage/남용 abus의 차이는 논리적이다.

27) 마른 maigre/호리호리한 fluet의 차이에는 감정적 요소가 들어있다.

28) 단어가 의미하는 직접 방식에서 표현 수단에 의한 간접 방식으로 이행할수록 감정의 뉘앙스가 증가하여 순수한 감탄에서는 최대가 된다.

29) 지소사는 필련 cigare/담배 cigarette의 경우처럼 논리적인 경우와 maison/maisonnette의 경우처럼 정서적인 경우가 있다.

30) 《영혼의 자존심은 겸양과 모순되지 않는다. La fierté de l'âme est compatible avec la modestie.》에서 fierté는 장점이자. 그러나 “이 사람의 오만은 모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La fierté de cet homme indispose tout le monde.》의 fierté에는 비난의 어조가 숨어있다.

함을 자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희극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희극은 문학적 표현과 일상적 언어의 중간 형태로서 문체연구와 문체론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르이다. Bally는 앞의 Augier의 예를 다시 인용하고 있다.

《이봐요, 장인 어른, 사위라는 이 작은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Eh bien, cher beau-père, comment gouvernez-vous ce petit désespoir de gendre?》

여기서 *petit désespoir*가 희극적 정감을 일으키는 것은 《절망》과 《작다》라는 관념이 의도적으로 불균형하게 연결된 까닭이다. 이렇듯 표현의 자연적인 정의적 효과는 표현 자체에 직접 기인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선/악, 패/불패와 같은 사고의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다.

## 2. 환기효과

표현은 자연적인 정서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환경을 나타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Bally는 이것을 <환기효과>라고 부른다.

표현이 가진 <환기효과>는 <보편언어>와의 대조에 의해서 지각된다. Bally에 의하면 모국어화자는 자신의 모국어를 전부 알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다. 또한 그는 표현의 빈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단어의 사용 빈도와 그에 따르는 감정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모든 발화주체가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고 있는 표현양식의 집합, 즉 <보편언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암묵적 동의야말로 사고 전달의 필수 조건이며, 한 언어 그룹의 보편 심리의 집약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삶과 행위, 사고의 측면을 표현하는 언어행위들이 <보편언어>와의 대조에 의해서 그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 <보편언어>는 <지적표현양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더 단순하고 조출하고 진부하다는 점에서 그것과 구분된다. 《게 걸스럽게 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음의 동사 *engloutir*, *ingurgiter*, *avalier* 등은 흡수하다 *absorber*라는 지적인 표현에 의해 확인되지만 이 용어는 과학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적인 <보편언어>와는 구별된다.

모국어화자라도 자신이 모르는 사물을 지시하는 단어를 만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물이라도 그것을 지시하는 방식이 낯설다면 당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준마 *coursier*, 군마 *destrier*, 말 *cheval*, (말 따위의) 타는 짐승 *monture* 등의 동의어계열에서 *cheval*는 일상적 용어 *terme usuel*이나 *coursier*, *monture*는 의식 속에 존재하긴 하지만 일상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특별히 문학언어에 정통하지 않는 한, *destrier*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의 언어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이 아닌 *non usuel* 것과 쓰이지 않는 것의 구분은 미묘하지만 현실적이며, 문체론은 <환기효과>를 갖고 있는 일상적이 아닌 표현에 주목하게 된다. 누군가가 《나의 부친이 방금 운명하셨다. *trépasser*》라고 심각하게 말한다면, 사실 자체의 비극성

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웃고 싶어질 것이다. *trépasser*는 구어에서는 사라져버린 시적 단어로써 <보편언어>인 죽다 *mourir*와 비교되어 빛나간 <환기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환기효과>는 단어의 의미작용과는 상관이 없으며, 그것이 제 위치에서 쓰일 때 갖게되는 자연적 효과와도 무관하다.

어떤 외국인이 환경과 상황의 고려 없이 《먹다 *manger*》 대신 《게걸스럽게 먹다 *bouffer*》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이 표현의 <환기효과>에 의해 불리하게 분류될 수 있다. *bouffer*는 속어이기 때문이다.

<환기효과>는 언어행위와 연합되어 있는 활동과 삶의 형태에서 간접적으로 비롯된 인상이므로, 문체론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보편심리>에 의해 단순화 될 수 있으며, 이 <보편심리>는 <보편언어>로 구현된다. 따라서 <환기효과>는 <보편언어> 주변으로 모아지고, 표현의 상징적 가치는 <보편언어>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이나 이하로 제시된다. <보편언어> 보다 상위의 사회적 상태나 행위, 사고를 반영하는 언어는 문어<sup>31)</sup>에 속한다. 반면 한 언어행위가 발화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동등성, <보편심리> 이하의 사고나 행위, 사회적 상태를 보여주면 그것은 구어 *langue parlée, langue de conversation*<sup>32)</sup>이다. <보편언어>의 일상적 표현인 《나는 가망이 없다. *Je suis perdu*》는 문어에서는 《나는 희생되었다. *C'en est fait de moi*》가 될 것이지만 구어의 경우에는 《나는 망했다 *Je suis flambé.*》라는 친근한 표현에서부터 《나는 끝장났다 *Je suis fichu.*》라는 속된 표현으로 그리고 결국은 《작살났다. *Je suis foutu.*》 같은 상스러운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환기의 성격과 메카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문학에서 희극적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과장과 불균형을 들 수 있다. Bally는 Molière의 《상상병 환자 *Malade imaginaire*》의 경우를 예로 든다: 의사는 자신이 유발시킨 질병들을 나열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그 웃음은 발화되는 상황과 의학용어의 중첩이 <보편언어>의 대조를 이루는 데서 비롯되는 웃음이다.

개인의 음성적 습관 역시 그가 속해 있는 환경을 환기시켜 준다. 한 발화주체가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의 발음이나 억양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다분히 감정적이다. 그러나 계층의 차이에 의해 사회적 제약을 받을 때 그의 억양에서 감정적 요소는 사라지고 발음은 표준화된다. 결국 <환기효과>는 <보편언어>와 환경의 영향을 받은 표현 사이의 편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기효과>는 언어행위가 본래의 환경에서

31) 문어라고 해서 반드시 글로 쓰여진 언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문학언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편지글의 경우 그것이 말하여진 것이 아니라 쓰여졌다고 해서 문어 *langue écrite*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정하는 환경이다.

32) 구어 역시 단순히 친근한 어조에서부터 상스러운 속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보여주고 있다.

떨어질수록 강력해진다. 또한 일상 생활과 관계된 표현일수록 더 큰 <환기효과>를 자아낸다. 이런 표현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용어를 <보편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죽음 trépas은 문학언어이고 사망 décès은 행정용어로서 <보편언어> 죽음 mort과의 비교를 통해 감수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환기효과>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표현양식은 <전문용어>와 <문학언어>이다. 이 표현 형태는 <보편언어>가 충족시킬 수 없는 상위의 욕구에서 비롯되며 강력한 <환기효과>를 갖기 때문에 문체론의 관심을 끌게 된다. 기술적 용어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지적 욕구에서 비롯된 과학어, 행정어, 비밀어 jargon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자가 <맛>을 지시하기 위해, 일상적 용어인 맛있는 savoureux 대신 그윽한 sapide을 사용한다면 그 용어는 savoureux와의 대조에 의해 <환기효과>를 자아내게 된다. 행정어는 객관적이면서도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환경을 환기하는 능력이 강력하며, 비밀어는 제한된 어떤 집단의 언어라는 점에서 그 집단의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문학언어>는 <보편언어>의 진부함이 채워줄 수 없는 미학적 욕구의 산물이다. 본질적으로 종합적인 감정을 가장 순수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의 의미는 물론 그 결합, 통사 등 표현의 간접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에서는 일상적 언어에서라면 가장 진보적인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을 통사구조가 허용되는 것이다.<sup>33)</sup> 이러한 <문학언어>는 구어로부터 끊임없이 자양분을 섭취한다. <문학적 표현방식>이란 <보편언어>를 정서적인 방식으로 굴절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학언어>가 구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다른 효과를 자아내게 되는 점이다. 문학적 표현의 환기효과는 구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즉 문학적 표현은 일상적 언어와 대조되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 V. 간접적 표현방식

표현에 있어서 개별적 단어의 의미와 전체적 표현에서 실현된 의미를 어휘적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방식도 있지만 단어와는 관계 없이 문체론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Bally는 이것을 <간접적 표현방식>이라고 부른다. 사고의 정서적 측면을 나타내는 간접방식은 동사, 역양, 감탄사, 생략등의 표현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내가 부자라면 si j'étais riche》 같은 형태로 욕망을 표현할 때, 화자는 <자료-관념 idée-matière>이라 칭할 수 있을 《부자》라는 관념을 《욕망》이라는 <형태-관념 idée-forme>에 집어넣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자라는 관념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통사 방식이 개입되어 있다. 말하자면 욕망의 표현은 순수한 문법적 용어 <si>가 동사의 시제, 법과 결합함으

33) 《Jamais plus la jeunesse ne reviendra》.

일반적인 통사구조에서는 《la jeunesse ne reviendra jamais plus》가 될 것이다.

로써 실현된다.<sup>34)</sup>

억양 역시 감정과 정서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간접적 표현방식으로서 그 의미적, 표현적 가치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의 언어행위에는 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섞여있기 마련이지만 극단적인 경우, 어느 하나가 완전히 흡수되어버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Que voulez-vous?*》는 《좋아 *bon, bien*》을 거쳐 《제기랄 *sapristi! sacrebleu!*》에 이르러 감정의 극단을 보여주며, 이 감정을 확정하는 것은 바로 억양이다. 또한 갑탄적인 억양의 영향을 받는 단어군에서 요소들은 독립성을 상실하거나 해체, 생략되기조차 한다. 단번에 표현되고자 하는 정서적 움직임이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Bally는 사고의 발화에서 정서적 움직임을 표현하게 되는 것은 억양이므로, 강력하고 특징적인 억양 앞에서는 정서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문체론의 임무라고 말한다.

생략법은 처음에는 표현에 필수적이었던 어떤 언어학적 요소를 이제는 표현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표현의 감정적 특징을 부각시키는 표현방식이다.<sup>35)</sup> 생략의 원인으로는 감정에 의한 사고의 망설임이나 중단, 최소 노력의 경제원칙 그리고 정서적 울림의 확산 등이 있다.

문체론의 연구에서 이들 <간접적 표현방식>의 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직접적, 자연적 효과> 또는 <환기효과>를냄으로써 화자의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 VI. 통사론과 문체론

발화주체에게 있어서 하나의 형식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언어의 표현가치나 의미작용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sup>36)</sup> 또한 언어의 변천 속에서 특정한 한 시대의 형태 체계가 가치 체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sup>37)</sup> 따라서 특정한 한 시대에 특정한 기능으로만 작용하는 통사 표본을 발견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단 한가지 수단에 의해서만 반영되는 사고의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sup>38)</sup> 그러므로 통사가 직접적인 형식적 수단과 관계될 때조

34) 단일 욕망이 기원동사 *verbe désidératif*에 의해 표현된다면 욕망이라는 형태-관념은 직접적, 어휘적 수단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 또한 직접적 표현 방식과 간접 방식의 차이는 순수하게 외적인 것이어서 형태-관념의 일람표가 있다면 《*si j'étais riche~*》 같은 통사 유형은 기원동사와 똑같은 항목에 속할 것이다.

35) 어원적 연구와는 반대로 생략법은 사라진 요소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에만 존재한다.

36) 질문의 논리적 상징으로서의 의문의 억양은 감탄을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규칙적 강제는 의미작용을 상실하며 이동된 강세만이 가치를 지닌다. 《*canaille!*》가 욕설이기 위해서는 강세가 첫째 절로 이동하여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37) 접미사 *-et, -ette*의 경우 이들의 의미는 지적 수준에서 정서적 수준까지 다양하며 때로는 처음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기도 한다.

38) 불어동사의 현재시제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 미래 또는 비한정적 시제 등을 포함하는데 이 개념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차 통사론과 문체론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문법이 사고의 논리적 측면에 주목하고, 문체론이 사고의 정서적 측면에 몰두하기 때문이 아니라, 표현방식의 체계와 표현가치의 체계가 비교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사론이 관념과 감정의 연합에 눈을 돌려 그것의 언어학적 실현을 연구한다면 통사론은 형식적 수단의 수집, 분류를 벗어나 <형태-관념>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문체론과 연결될 수 있다.

간접방식은 정서적이지만 <형태-관념>, 즉 추상적 개념 아래 확인될 수 있다. 관념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감정의 형태도 표시될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Bally는 A. Theuriet의 시에서 시제 사용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Nous *venions* de la Chine, et sur la mer vermeille  
 Notre vaisseau *cinglait* vers le pays de l'or;  
 Nos yeux ne *distinguaient* point le rivage encor,  
 Mais la brise *apportait* parfois des sons de cloche,  
 Et chacun se *disait* que la terre *était* proche.  
 La nuit *survint*, mauvaise et sinistre; au matin,  
 Trompés par le brouillard et le vent incertain.  
 Nous *touchions* au bas-fond, et la mer, pièce et pièce,  
*Brisait* sur les rochers le navire en détresse.

불어의 반과거와 단순과거 사이의 구분은 매우 문법적이고 논리적이다. 이 시키에서 처음 다섯 개의 반과거는 단순한 논리적 용법으로서, 두 가지 사건 사이의 단순한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 단순과거 *survint* 역시 논리적 용법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과거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문어>에 속하며 <환기효과>를 갖게 된다. 그 뒤의 반과거 *touchions*과 *brisait*도 흥미롭다. 논리상 이것들은 단순과거와 다르지 않으며, 단순과거로 대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반과거의 효과는 무엇인가? 반과거를 사용함으로써 사건은 놀랍고 예기치 않은 성격을 갖게 된다. 뚜렷한 자연적 효과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반과거 *touchions*과 *brisait*는 문법에 의해서는 규명될 수 없으며, 문체론만이 그 본질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통사적 사실들이 문체론적 관찰의 여지를 남기며 문체론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때로 문법이 공허한 이론에 빠지는 것은 논리적 측면에만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문체론에 의한 정서적 설명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 VII. 구어와 문체론

Bally는 구어를 문체론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구어의 경향과 표현적 특성, 그리고 구어적 표현이 사용하는 언어 수단을 살펴보는 것은 구어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나아가서는 문체론이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구어는 현실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지적,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이다. 타인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구어는 추상화를 피하고, 순수한 관념의 표현인 경우에도 감각 세계에서 그 접촉점을 구하고자 한다. 이른바 비유의 이미지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어의 이미지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문학적 이미지와는 달리 짧고, 밀도있고 정서적이다. 《침묵시키다. faire taire》를 대신하는 《—의 입을 다물게 하다. fermer le bec à qn.》이 보여주듯 이 이미지는 매우 친근하며 상당히 큰 <환기효과>를 자아낸다. 구어는 개인적 사교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전달함과 동시에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과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장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반비례한다. 구어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욕구와 필요에서 간접적 표현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휘적 수단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강력한 환기력을 지닌 친근한 언어는 어휘와 결부되어 있다. 이 표현의 <환기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에 상응하는 일상적, 비표현적 언어와 비교해보면 된다. 《웅얼웅얼하는 목소리 une voix bredouillante》는 《불분명한 목소리 une voix indistincte》에 의해 확인된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구어의 정서적, 환기적 특징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구어는 왜 이론적으로 등가치인 <보편언어>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Bally는 <구어>의 어휘 형성에 대해 형용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petit, grand, bas, haut 등의 형용사는 상상력이나 감수성에 보다는 지성에 호소하며, 너무도 명확하게 장·단점을 지시한다. 이 적나라한 지시를 완화시키려면 새로운 형용사를 창조하거나 다른 언어 층위에서 차용을 하여 형용사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Paul est bon》《Le bon Paul》《Paul est un bon garçon》《Paul est un bon diable》《Paul est un drôle homme》《Cet animal de Paul》등 단순한 형용사에서부터 감각 세계에서 벌어진 명사 속격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으로 《bon》의 가치를 지닌 모든 표현들을 형용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감탄사는 어휘적 표현방식과 간접적 표현방식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시되고 있다. 감정은 감탄사에서 물질적 근거를 발견하기 때문에 정의만으로는 규명되지 못하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다. 표현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혐오 dégoût》의 의미가 중요한 만큼 감탄사 《fi》<sup>39)</sup>의 가치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어는 무엇보다도 간접적 표현방식 즉, 정서적 통사 방식에 의존한다. 그 예로서 Bally는 <해체>를 들고 있다. 문장 구성 요소들의 논리적 응집력은 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어에서는 감수성과 의지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구속으로 작용한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증오했다. Cette mère déteste son enfant》는 일상적 통사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정서적으로 표현할 때 <해체>가 일어난다. 《자기 아이를 증오했다니, 이 어머니는! Son enfant, mais elle le déteste, cette mère》같은 구성은 매우 생생하며 특별한 억양을 요구하는 것이

39) 《피! fi!》는 《이것은 내맘에 들지 않는다. cela me dégoûte》라는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다.

다. 논리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조차 구어는 특별한 구성을 사용한다. 《인간은 죽기 마련이다. 그런데 폴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폴은 죽는다. Les hommes sont mortels, or Paul est un homme, donc Paul est mortel.》은 보통의 삼단논법이다. 그러나 구어는 《인간이란 죽기 마련이다. 그렇지? 좋아 그런데 폴은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는 죽을 거야, Les hommes sont mortels, n'est-ce pas? Bon, mais Paul n'est-il pas un homme? oui? eh bien! alors, il doit être mortel.》처럼 표현할 것이다. 일상적 통사는 표현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구어의 통사는 그것을 하나의 발화에 융합시킨다. 《그가 불행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동정한다. Je plains cet homme parce qu'il est malheureux.》 같은 일상적 형태에서 동정의 관념은 《je plains》에 있으며 통사 구조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 내가 얼마나 그를 동정하는지 Pauvre homme, que je le plains》에서 인과관계는 매우 흐릿하다. 문장 어디에나 퍼져있는 동정의 감정 속에 용해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동정심이 완전히 종합적으로 발화되면 《가엾은 사람! Pauvre homme!》 같은 감탄적 표현이 될 것이다. 이렇듯 구어에서 동사의 도달점은 사고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융합이다. 구어는 표현의 정서적 측면의 분석에 의해 규명될 수 있으며 문체론이 구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 VIII. 결 론

문체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언어연구는 배타적인 정신이나 논리적인 체계에만 한정된 연구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없다. 문헌학적, 역사적 방법론에 의한 과거의 연구 방식과는 다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현대 언어의 생태와 메카니즘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국어 특히 일상적 표현의 연구에 의해 보편적 언어 행위에 대한 인식은 증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불완전하게 연구되어온 언어의 상태와 표현체계에 대한 명료한 관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론이 단어의 어원이나 역사 속에서의 변천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태에서의 언어가 보여주는 표현과 사고 사이의 상응을 대상으로 한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Bally는 언어의 체계를 붕괴시키고 요소에만 집착하는 역사주의적·분석적 방법론을 버리고 현대어를 그 자체로서, 자발적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Bibliographie

P. Robert, *Dictionnaire*, ISBN, 1979.

J. Dubois et al.,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arousse, 1973.

- R. Galisson et D. Coste, *Dictionnaire de Didactique des Langues*, Hachette, 1976.
- Ch. Bally,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Editions Francke Berne 1965.
- Ch. Bally, *La Crise du français. Notre langue maternelle à l'école*, Delachaux, 1931.
- H. Bauche, *Le langage populaire*, Payot, 1928.
- F. Boillot, *Psychologie de la construction dans la phrase française moderne*, presses universitaires, 1930.
- M. Bréal, *Essai de sémantique*, Hachette, 1904.
- F. Brunot, *La pensée et la langue*, Masson, 1922.
- A. Dauzat, *Histoire de la langue française*, Payot, 1930.
- H. Frei, *Grammaire des fautes* Geuthner, 1929.
- E. Legrand, *Stylistique française*, Gigord, 1922.
- J. Marouzeau, *Accent accectif et accent intellectuel*,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inguistique de Paris 25, Klincksieck
- J. Marouzeau, *Précis de stylistique française*, Masson et C<sup>ie</sup>, 1965.
- A. Meillet, *Caractères généraux des langues germaniques*, Hachette, 1917.
- Fr. Paulhan, *Le double fonction du langage*, Alcan, 1929.
- F.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931.
- A. Vannier, *La clarté française*, Nathan, 1923.
- W.v. Wartburg, *Evolution et structure de la langue française*, Leipzig Teubner, 1937.
- B. Zolni, *Remarque sur l'expressivité des éléments sonores du langage*, Szeged. Acta Universitatis, 1939.
- C. Bureau, *Linguistique fonctionnelle et stylistique objective*, P.U.F. 1976.
- M. Cressot, *Le style et ses techniques*, P.U.F., 1969.
- R. Galisson, *Lexicologie et enseignement des Langages*, Hachette, 1979.
- L. Guilbert, *La créativité lexicale*, Larousse, 1975.
- P. Guiraud, *Structure étymologiques du lexique français*, Larousse, 1967.
- H. Holec, *Structures lexicales et enseignement du vocabulaire*, Moutar, 1974.
- P. Léon, *Essai de phonostylistique*, Didier, 1971.
- R. Martin, *Inférence, antonymie et paraphrase*, Klincksieck, 1976.
- H. Mitterand, *Les mots français*, Que sais-je, P.U.F., 1963.
- H.G. Schogt, *Sémantique synchronique synonymie, homonymie et polysémie*, Univ. of Toronto press, 1976.
- J. Sumpf, *Introduction à la stylistique du français*, Larousse, 1971.

**Etude sur la Stylistique de Charles Bally****CHUNG, Ji-Young**

Définition de la stylistique: elle étudie la valeur affective des faits du langage organisé, et l'action réciproque des faits expressifs qui concourent à former le système des moyens d'expression d'une langue. La stylistique peut être, en principe, générale, collective ou individuelle; mais l'étude ne peut présentement se fonder que sur le langage d'un groupe social organisé; elle doit commencer par la langue maternelle et le langage parlé. Cependant les langues modernes du type "européen" portent la marque d'une mentalité commune, qui permet de faire sans trop de danger une comparaison entre ces différentes langues au point de vue stylistique. La stylistique peut, en principe, s'attacher à l'étude d'une langue morte ou d'un état de langage qui n'existe plus; mais en aucun cas elle ne peut être une science historique; la cause en est que les faits de langage ne sont faits d'expression que dans la relation réciproque et simultanée qui existe entre eux.